

자녀의 취침 및 학습 행위 패턴으로 본 기러기 가족의 주생활 특성 연구

-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조기 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

이 현 희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Dwelling Characteristics of Geese Families based on the Analysis of Sleeping and Studying Patterns in Vancouver

Lee, Hyun Hee

Dept. of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leeping and studying patterns of young students and their mothers after moving to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Geese Family members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leeping Pattern: At the early stages of settling into foreign countries, students begin to sleep in the same bedroom with their mothers, who had used to sleep in separate bedrooms back in Korea. This change in pattern may slightly vary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of the students, and type of residence. Relationships between young students and mothers become more tightly coupled. However,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and fathers become less tightened. 2) Studying Pattern: Students tend to study in the public space such as the living room and dining areas, rather than in their own private rooms. This is because mothers want to support and focus upon their children's study by sacrificing normal family activities. These patterns appear stronger as their period of study in the foreign country becomes shorter and the ages of the students become younger. These studying patterns also contribute to the coupling between mothers and young students. 3) Family Relationships: From the period as Geese Families,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nd young students become closer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become less close. The role of fathers is degraded to that of supporter or negotiator for the time period of the mothers and child students in the foreign country.

Key words: geese family, dwelling characteristics, sleeping pattern, studying pattern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2010년 8월 1일 심사일: 2010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

Corresponding Author: Lee, Hyun Hee Tel: 82-31-750-5411

e-mail: hhlee@kyungwon.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조기유학이 본격화된 1997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조기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7천명을 상회하던 조기유학생은 2005년도에는 2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증가가 눈에 띈다.

조기유학은 과열된 입시경쟁 제도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욕구,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글로벌화 대비, 선진 문화 및 우수 교육 환경 경험 등을 이유로 외국 선진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며, 조기유학의 병폐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유학은 당사자에게는 현지 적응, 학업성취 등의 과제를 부여하며, 가족에게는 기러기 가족과 같은 가족 관계의 재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러기가족은 조기유학으로 인한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러기가족’이란 우리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현대 조어로서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주로 어머니와 자녀가 영어권 국가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떨어져 거주하게 된 가정을 지칭한다. 경제적 부담은 주로 본국에 남은 아버지가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은 상호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 관계를 보이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형태를 갖게 된다. 초국적 가족은 한국 사회의 근대 부흥기에 남편이 가족의 생활비를 위하여 외국으로 파견 근로자를 지원했었던 ‘생계형’의 선례가 있다. 그러나 강유진(2009)에 의하면 현재의 기러기 가족은 아버지가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보다 나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송금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며, ‘선택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조혜영 등(2005), 최양숙(2008), 강유진(2009)은 조기유학생의 적응과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을 공유하지 못하면서도 표현수단과 방법의 변화로 부모

와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김선미(2007), 김양희와 장은정(2004)은 경쟁적인 현대의 사회분위기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세대의 왜곡된 희생, 자식 중심의 가족관이 만들어 낸 가족관계의 왜곡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김양희와 장은정(2004), 강유진(2009)은 기러기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각각의 구성원이 갖게 되는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등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 등에서 활발히 토론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러기 가족에 대한 많은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을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유익과 무익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오히려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주생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주거 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생활의 변화 특성을 재고해 보고자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주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즉, 현재까지 연구 보고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가족관계를 의사표현, 전달수단 등 소통의 수단과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유학생 가족의 일상적 주생활, 특히 취침과 학습행위 패턴을 통하여 기러기 가족의 주생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본으로 가족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생활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중첩으로 표현되는 총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초국적 가족 형태를 선택하기 전과 후의 주생활 특성, 즉 조기 유학 실행 이전과 이후의 주생활 특성을 유학생 가정의 취침과 학습행위 발생장소에 한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장차 일상생활에 내포되고 중첩된 가족관계의 특성을 해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안정된 생활, 가족관계 등의 해석하고자 취침과 학습행위 패턴에 주목하여 기러기 가족의 생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취침과 학습행위는 기러기 가족의 하루 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 가정에서는 영어 및 관련 학습이 최고의 목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행위가 기러기 가족의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최고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의 학습행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기러기 가족의 생활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침행위는 초국적 가족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 정서·안정감·불안감 등의 변화가 표현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기러기 가족의 주생활 특성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위치 및 상호관계에 대해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및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조기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밴쿠버 지역의 S시를 선택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유학생 출국 현황에 의하면, 우선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유학생의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조기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기유학생 체류기간별 귀국현황에 의하면, 2년 미만이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단기 유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는 최소 한 학기인 6개월 이상을 밴쿠버에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위 '기러기 가정'을 주로 섭외하여 총 23세대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의 모집은 질적 분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밴쿠버의 남쪽에 위치하며, 한국인이 많이 밀집하여 있는 C지역, 중국인 밀집 지역인 R지역, 인도인 밀집지역인 S지역과 떨어진 지역으로 밴쿠버 내에서도 고령자 인구가 가장 많은 해안 접한 지역이다. 2006년도 이후, 조사대상 지역에 위치한 몇

개 학교의 BC주 교육평가 결과가 높게 보도되면서 최근 한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주로 응답자의 집에서 실시되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은 가족 상황, 캐나다 및 한국의 주거 공간 실태 및 사용자 현황, 주생활 행위 내용과 장소, 한국과 캐나다 주택의 비교 등이며, 응답자가 준비된 질문에 대답하고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심층조사는 작성된 설문지 내용을 보면서 한국의 생활과 비교하며 연구자가 그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며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 응답자의 양해를 얻어 밴쿠버에 소재한 해당 주택의 평면 및 가구배치 등을 스케치하였으며, 특징적인 공간 및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평면도 및 가구 배치도 작성은 채취과정을 통하여 취침은 물론 학습, 접객, 단란 등의 각종 주생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 및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수록과정에서 발생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네가티브 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실제 용도를 확인하였다. 초국적 형태의 가족 형태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한국의 주택에 대한 조사는 해당 주소를 적고, 조사자가 인터넷상에서 해당 평면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실의 사용자 및 대략적인 공간 이용방법을 도식화 된 평면과 함께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질문지에 작성된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러기 가족의 전반적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본으로 각 세대별 심층질의 내용과 가족 구성원의 주생활 행위 내용과 발생장소, 주택 평면 및 사진을 이용하여 주생활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최저 37세에서 최고 51세에 분포하며, 평균연령은 43.5세이다. 배우자의 연령은 최저 40세, 최고 58세에 분포하며, 평균연령은 46.9세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 당 자녀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이며, 평균 보유 자녀수는 1.6명으로 한국 평균 자녀 1.7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세대(43.5%)는 1명의 자녀를 보유한 세대이며, 1세대만이 3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녀는 학령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첫째 자녀에 한정하여 학년을 보면 최저 2학년에서 최고 12학년 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 자녀가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2세대이다. 캐나다 거주기간을 보면 최저 7개월에서 최고 6년4개월까지이며, 평균 2년4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예정 거주기간을 고려하면 Table 1의 내용과 같이 2~3년 이내 단기거주와 5년 이상의 장기거주 세대로 양분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거주공간의 일반적 특성

응답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주거의 주택형식은 3~4층으로 구성된 집합주택 또는 20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 각 세대가 독립된 정원을 갖는 4호~6호 연속주택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과 유사하지만 2호가 연결된 듀플렉스, 단독주택인 하우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은 목조 타운하우스, 아파트이며, 철근콘크리트조의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사례에 불과하다. 응답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ode	House type	Age of husband	Age of wife (respondents)	1st child grade/sex	2nd child grade/sex	3rd child grade/sex	Duration of staying(month)	Duration of expected staying(month)
A1	apartment	50	45	7/m	6/m		24	unknown
A2	apartment	44	39	5/m	K/f		18	0
A3	apartment	49	44	4/f			12	0
A4	apartment	49	45	11/m	8/m	4/m	31	12
A5	apartment	49	44	11/f	9/m		7	12
A6	apartment	41	39	5/m	3/m		10	unknown
A7	apartment	45	43	9/f			34	0(child)
A8	apartment	50	45	6/f			18	2
A9	apartment	41	39	4/m			7	6
A10	apartment	47	46	10/f			66	12
T1	townhouse	40	40	5/m	2/f		18	0
T2	townhouse	41	37	2/f	K/f		10	unknown
T3	townhouse	death	43	9/m			29	unknown
T4	townhouse	44	44	6/f	4/m		23	1
T5	townhouse	48	46	11/f	7/m		30	unknown
D1	duplex	45	44	12/f	10/m		76	unknown
D2	duplex	58	51	12/f	10/m		66	24
H1	house	52	50	11/f			61	unknown
H2	house	48	43	11/m	7/m		13	12
H3	house	48	45	12/f	11/m		24	15
H4	house	50	45	9/m			27	unknown
H5	house	45	40	5/f			21	1
H6	house	47	44	7/f			7	unknown

m: son, f: daughter, K: kindergaden

의 주거공간은 거실과 주방 외에 1개 침실인 경우가 2세대(8.7%), 2개침실인 경우가 12세대(52.2%), 3개 이상의 침실인 경우가 9세대(39.1%)로서 평균 침실 수는 2.3개실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주택의 형식은 모두 아파트이며, 규모는 34평형대에서부터 72평형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지에서 하우스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H1~H6)에는 한국에서의 주거규모와 유사하거나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주한 것이지만,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한국에서의 거주면적에 비해 협소해진 상황이며, 사용하는 침실 개수도 감소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난방이며 동절기에도 충분히 난방을 하던 한국의 아파트는 것에 비해 목조로 지어진 캐나다 주택의 난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캐나다 주택의 난방은 실별로 라디에이터(radiator), 리빙룸과 패밀리룸에 벽난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단독주택,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등 목조주택 거주자들은 난방비 부담 때문에 충분히 난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한국의 아파트에 비해 난방효율이 낮고, 넓은 면적을 난방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절기에도 낮은 온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이영심(2008), 이지현 등(2009)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정의 주거 공간 분석에서 난방에 대한 선호 내용을 보고한 내용과 같게 나타나고 있다.

2. 기러기 가족의 취침 행위 특성

기러기 가족의 주생활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각된 특징의 하나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주거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공간의 이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특히 리빙룸, 식사실 등의 공간은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사용하며, 손님 방문조차 매우 간헐적이다. 더욱이 보유한 침실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즉 자녀와 엄마가 같은 방에서 취침하는 특징들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가 어린 경우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리나 만약 이미 분리취침하고 있던 세대가 기러기 가족이 되면서 같이 취침하는 것이라면 자녀의 취학 후 부모와 자녀의 취침분리, 이성 자녀간의 취침분리 요구로 필요 개실이 증가되고 있는 이연숙(2005) 등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즉 이러한 경향이 기러기 가족이 초국적 가족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엄마가 자녀와 같은 방에서 취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이한 주생활 행위 패턴이 예상되며, 가족주기 발달과정에서 퇴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취침행위 특성을 엄마와 자녀가 같은 방에서 취침하는 '동실취침그룹'(9세대, 39.1%)과 엄마와 자녀가 다른 방에서 취침하는 '분리취침그룹'(14세대, 60.9%)으로 구분하여 주생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Table 2, Table 3과 같다. 동실취침그룹 응답자의 평균 연령층은 40.8세, 첫째자녀의 학년은 4.8학년으로 분리취침그룹의 45.3세와 10.1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부모와 어린 자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 동실취침그룹의 취침 특성

동실취침그룹의 특징을 보면, 캐나다 거주기간은 평균 13.4개월로 짧으며, 향후 예정하고 있는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도 2년을 넘지 않는다. 다만 A6, T2, H6 세대는 자녀의 적응 상황에 따라 유학기간을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완전히 이민으로 전환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 이 그룹은 한국에서 대부분 자녀와 부모가 다른 방에서 취침하였으나 캐나다에서 거주를 시작하면서 같이 취침하게 된 것이 특징적이며, 아버지가 캐나다에 있는 중에는 부부가 자녀와 분리 취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므로 부모방에서 같이 자거나 엄마가 자녀방에서 같이 자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A6 사례는 한국에서도 두 아들이 자녀의 방에서 자기 시작해도 밤사이엔 곧잘 부모들의 방으로 옮겨오곤 했었지만, 캐나다로 이주한 후로는 처음부터 같이 자고 있다. 현재는

아버지의 방문 기간 중에도 가족 전원이 같이 살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의 친구들이 와서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싱글베드 두 개는 자녀방 (Children’s Room)에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그룹은 한국에서 분리 취침을 하던 세대들이었으나 캐나다 거주를 시작하면서 자녀의 취침 장소가 변경된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도 있는 것은 동실 취침 그룹의 자녀들이 비교적 어리거나, 한 자녀 세대가 많으며, 특히 그 자녀가 딸인 경우,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등 주택형식 등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4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을 둔 T1 응답자는 “집이 타운하우스인데 너무 추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지만 침대 위만 겨우 따뜻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자요. 애들끼리만 재울 수도 없고. 남편이 왔을 때도 다 같이 자요. 침대가 좁으니까 남편은 바닥에서 잘 때가 많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각자 자기들 방에서 잤지요. 가끔 밤에 애들이 저한테 오기는 했지만요”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침실은 2개실을 보유한 상황이라 성별이 다른 두 자녀와의 완전한 취침분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충분히 만족한 난방상태가 확보되기 어려운 주택형식으로 인해 취침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학년 딸과 엄마로 구성된 A8 사례는 아버지의 귀국 후 엄마의 요청

으로 동실취침을 시작한 사례이다. A8 응답자는, “남편의 귀국 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하고, 또 추웠어요. 침대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딸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만 있어도 좀 낫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딸은 못이기는 척 같이 자는 것에 동의해 주었지만, 아마 그 아이도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였다. 5학년 딸을 H5 응답자는, “저도 딸아이도 같이 있는 것이 좋았어요. 아마도 이곳에 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문은 되도록 열어두고 살지요. ... 그렇지만 아이랑 같이 자니까 제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 몸부림이 웬만해야지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이층 침대에요. 아래층을 제가 사용하고, 아이가 위를 사용하는데 아이도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만족했습니다. 다음 달에 귀국하느라 가구들을 판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틀 만에 이층침대가 팔렸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엄마와 같이 자는 경우에도 자녀실은 책상 외에 침대를 완전히 갖추어 두고 자녀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Fig. 1에서 H6의 사례를 보면, 안방에 두 개의 침대를 나란히 배치해 두고 사용하며, 딸방

Table 2. Characteristics and room type of the group to sleep in the same bedroom with their mother

code	Age of wife (respondents)	1st child grade/sex	Duration of staying (month)	Duration of expected staying (month)	Room 1 room type	Room 2 room type	Room3 room type
A2	39	5/m	18	0	master r.	son’s	daughter’s
A3	44	4/f	12	0	mom’s r.	daughter’s	dress R.
A6	39	5/m	10	unknown	master r.	study r	
A8*	45	6/f	18	2	master r.	daughter’s	
A9	39	4/m	7	6	our room		
T1	40	5/m	18	0	mom’s r.	son’s r.	
T2	37	2/f	10	unknown	mom’s r.	study r	
H5	40	5/f	21	1	room		
H6	44	7/f	7	unknown	master r.	daughter’s	room
AVR	40.8	4.8	13.4				

A8* is the sample of the same and separate bedroom with their m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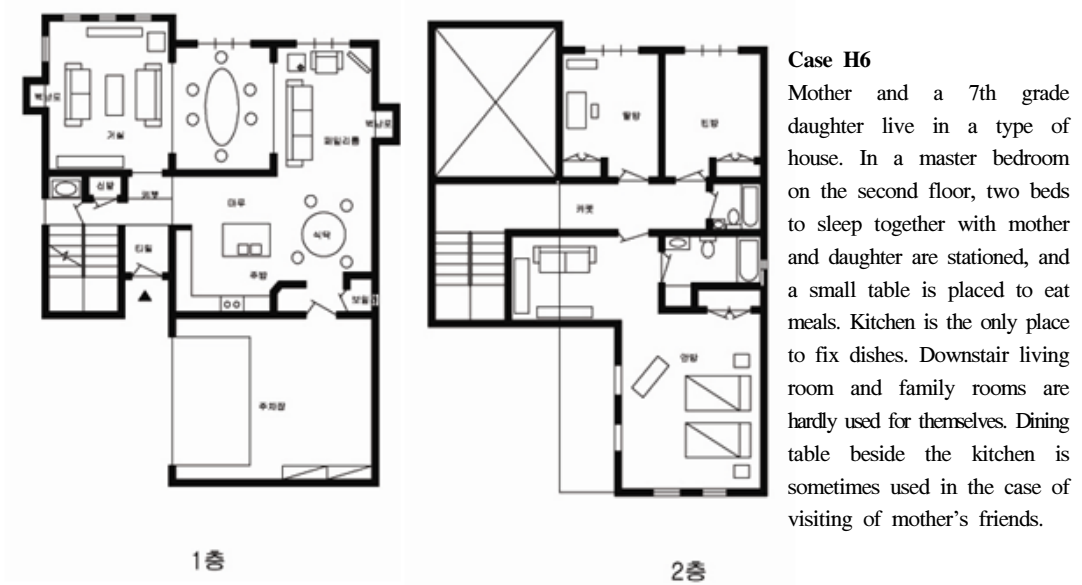


Fig. 1. Case H6 of the group to sleep in the same bedroom with their mother



Fig. 2. Bedroom of case A2



Fig. 3. Bedroom of case H6

은 책상과 책장만 배치한 채 ‘딸방’이라 부르고 있는데, 자녀의 친구들이 놀러 오기는 하지만 자고 가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은 예외 사례로 보인다. 실명을 보면 ‘엄마방(Mom’s Room)’, ‘안방(Master Bedroom)’, ‘우리방(Our Room)’ 등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딸방은 독립되어 있었으며, 학습은 물론 취침도 딸방에서 이루어졌던 사례이다. ‘우리방’이라는 실명은 아들과 밀착된 응답자의 상황(A9 사례)을 짐작하게 하는 실명으로, ‘엄마방’은 자녀방과 함께 주된 사용자

를 구분해 두려는 구성원 상호간의 의지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의 습관이 지속된 ‘안방’의 실명은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분리취침그룹의 취침 특성

동실취침그룹과 비교하여 Table 3에서 분리취침그룹의 특징을 보면, 평균 거주기간이 36.5개월로서 현지 생활에는 완전히 적응한 고학년 자녀들, 대학 진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자녀들이 많고, 향후에도 대학진학 시기까지 캐나다 거주를

Table 3. Characteristics and room type of the group to sleep in separate bedrooms with their mother

code	Age of wife (respondents)	1st child grade/sex	Duration of staying (month)	Duration of expected staying (month)	Room 1 room type	Room 2 room type	Room3 room type
A1	45	7/m	24	unknown	mom's r.	children'	
A4	45	11/m	31	12	children'	mom's r.	
A5	44	11/f	7	12	master r.	studying	
A7	43	9/f	34	only child	mom's r.	daughter's	
A10	46	10/f	66	12	mom's r.	daughter's	
T3	43	9/m	29	unknown	mom's r.	son's	rooms
T4	44	6/f	23	1	master r.	daughter's	
T5	46	11/f	30	unknown	mom's r.	daughter's	son's
D1	44	12/f	76	unknown	mom's r.	daughter's	son's
D2	51	12/f	66	24	mom's r.	daughter's	son's
H1	50	11/f	61	unknown	mom's r.	daughter's	
H2	43	11/m	13	12	master r.	elder's	younger's
H3	45	12/f	24	15	master r.	son's	daughter's
H4	45	9/m	27	unknown	mom's r.	son's	room
AVR	45.3	10.1	36.5				

예정하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다. 현지 생활과 한국 생활, 아버지의 방문 중에도 자녀의 취침행 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그룹은 엄마와 자녀가 상호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도 있는 것은 분리취침 그룹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이거나, 복수 자녀, 한 자녀인 경우에는 아들인 것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A10 응답자는, “딸과 같이 잔다고요? 같이 잔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딸이라도 서로 닿는 것이 싫어요. 혼자서 널찍하게 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 일거예요”라고 응답하였다. “딸은 6학년인데 자기방에서 자고, 4학년 아들은 제가 데리고 자요. 방이 3개이면 좋지만 그게 어렵잖아요....왜 아들을 데리고 자냐고요? 개가 더 어리잖아요. 덩치도 작고.(T4 응답자)” “아들이 9학년인데, 이 정도 되면 먹는 것 챙겨주고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만 하면 되요. ...글쎄요, 아마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잤던 적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소리 들으면 기겁할 거예요(H4 응답자).”

실명을 보면 엄마가 사용하는 방을 ‘엄마방

(Mom's Room)’, ‘안방(Master Bedroom)’으로 불리고 있다. ‘엄마방’은 동실취침그룹에서와 같이 자녀방과 함께 주된 사용자를 구분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인정 표현이며, ‘안방’의 실명은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학습 행위 발생 장소의 특성

기리기 가족의 학습행위 발생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실취침그룹’(9세대, 39.1%)과 ‘분리취침그룹’(14세대, 60.9%)으로 구분하여 현재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학습장소를 정리하면 Table 4, Table 5와 같다. 동실취침그룹은 자녀실 보다는 식탁, 거실 등의 장소를 이용하여 엄마 또는 개인교사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리취침그룹은 자녀실과 식탁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 동실취침그룹의 학습 장소

우선 Table 4에서 동실취침그룹의 학습 장소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자녀방(Children's Room)과 가족 공동의 장소가 학습장소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Table 4. Studying pattern of the group to sleep in the same bedroom with mother

Code	Age of wife (respondents)	1st child grade/sex	Children	In Canada		In Korea	
				studying 1	studying 2	studying 1	studying 2
A2	39	5/m	2	room r3	children's	studying r.	
A3	44	4/f	1	living r.	daughter's	living r	daughter's
A6	39	5/m	2	dining table	living r	living r*	
A8	45	6/f	1	children's	living r	children's	computer r.
A9	39	4/m	1	living r		studying r.	
T1	40	5/m	2	children's	living r	children's	
T2	37	2/f	2	dining table	studying r.	children's	dining table
H5	40	5/f	1	living r*		living r	children's
H6	44	7/f	1	children's	master r.	children's	
AVR	40.8	4.8	1.4				

Living r* is another special table in living room.

자녀방 대신 거실(Living Room) 또는 식탁(Dining Table)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6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비교적 주거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거실 중앙에 넓은 테이블을 두고 두 아들의 학습을 지휘, 감독하였으나 현재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식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중인 식탁은 한국에서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테이블을 여러 곳에 두어 변화를 주고 있다 (Fig. 4). 현재 이 세대에는 식탁, 거실테이블, 발코니 등에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두어 다양한 학습장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되는 모든 공간

은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습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T2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2학년과 유치원생의 두 자녀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식탁에서 공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쉽게 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T2 응답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애들이 어려서 차고 앉아 있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눈앞에 앉혀두고 시켜야지요. 또 질문이 많아서 수시로 가서 해결해 줘야 하나까 식탁이 편해요. 부엌일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식탁을 이용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자기방에



Fig. 4. Dining & studying table of case A6(left: dining table used for studying, right: computer table beside the dining space)

서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애들 방에는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유학생 가정의 처량함이랄까. 잠도 저랑 같이 자고 하니까.” 한편, H5 세대는 특별히 테이블을 마련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넓은 교자상을 거실테이블로 사용하면서 자녀의 학습지도장소로 이용하고, 혼자 숙제 등은 자녀방에서 하도록 했었지만 현재는 리빙룸 중앙에 특별테이블을 두고 이용하고 있다. 특별테이블은 교자상과 같은 기능을 갖기 위하여 900×1,800 사이즈의 테이블을 현지에서 구입한 후 다리를 잘라 낸 것이며, 한국에서와 비슷한 공간이 확보되어 응답자는 매우 만족하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5학년 딸은 자기 책상을 따로 갖고 있으며, 책장에 학교 관련 용품들을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A2의 경우에는 넓은 식탁은 식사와 접객의 장소로 이용하면서 따로 공부방을 두어 학습하고 있다. A2의 응답자는 식탁이 학습장소로 이용될 경우 지우개 가루 등이 떨어지는 것을 비위생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자

녀의 학습동안 식탁은 주방과 함께 자신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자녀의 학습은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이상의 사례들과는 대조적으로 A8과 T1, H6은 자녀방에서 주로 공부하고 거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H6은 가족이 거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1층은 식사준비 장소로 이용하고, 넓은 안방에 카우치와 테이블을 두고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이다.

2) 분리취침그룹의 학습 장소

Table 5 에서 분리취침그룹의 학습행위발생장소를 보면, 한국에서는 거의 자기방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자기방과 식탁을 사용하는 세대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 현지에서 자기방을 주된 학습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A10(Fig. 6)처럼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는 고학년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특히 집안에서 개인교습을 받을 때 자기방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Table 5. Studying pattern of the group to sleep in separate bedrooms with their mother

Code	Age of wife (respondents)	1st child grade/sex	Child	In Canada		In Korea	
				studying 1	studying 2	studying 1	studying 2
A1	45	7/m	2	dining table	children's	studying r.	
A4	45	11/m	3	dining table	children's	children's	
A5	44	11/f	2	studying r	dining table	children's	
A7	43	9/f	1	children's	living r	children's	
A10	46	10/f	1	children's	dining table	children's	
T3	43	9/m	1	basement	dining table	children's	
T4	44	6/f	2	dining table	master r.	children's	
T5	46	11/f	2	dining table	dining table /daughter's r.	dining table	children's
D1	44	12/f	2	children's	children's	children's	
D2	51	12/f	2	den	daughter's r.	children's	
H1	50	11/f	1	children's		children's	
H2	43	11/m	2	children's	living r.	children's	
H3	45	12/f	2	children's		children's	
H4	45	9/m	1	children's		children's	
AVR	45.3	10.1	1.7				



Fig. 5. Dining & studying table of case A1

만, 자기방 외에 지하(T3), 덴(D2)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T3의 경우에는 9학년 아들의 방이 어지러운 상태이므로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D2는 11학년 딸과 10학년 아들을 위한 개인교습공간으로 거실과 주방 사이의 덴을 개인교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들은 개인교습이 아닐 때도 자기방이 아니라 덴을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아들을 감독하기 위한 D2 응답자의 강구책이라고 한다. 엄마가 학습을 돕기 위하여 식탁을 사용하는 것은 A1(Fig. 5)과 T5도 같은 경우이다. 반면에 A4의 경우는 3명의 아들이 각각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넓은 식탁을 형제들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학습장소와 비교하면, 식탁이 계속해서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T5의 한 사례에 불과하며, A1, A4, T3, T4, D2 사례는 학습효과를 위하여 학습 장소가 변경된 사례이다.

4. 취침 및 학습 행위 발생장소로 본 기러기 가족의 특성

1) 취침 행위 발생장소로 본 특성

유학생 자녀의 취침은 한국에서는 부모와 분리 취침하고 있었으나 유학 현지에서는 엄마와 함께 자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유학 이주 기간이 짧을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엄마와 같이



Fig. 6. Dining table of case A10

자기에 무리가 없는 조건, 즉 어린 자녀나 딸 한 명의 가정에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 정착을 지원하던 남편의 귀국 후 본격화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을 엄마와 자녀가 공통적으로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학생 중에 원하는 개수의 침실을 확보하지 못한 점, 주택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주택규모 및 형식도 동실취침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분리취침을 하던 자녀가 동실취침으로 변화된 점, 취침장소의 변화로 자녀와 엄마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밀착되는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같은 방에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취침하는 경우는 급격히 감소한다. 즉, 현지 적응기간이 지나고 엄마는 물론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주거공간에서도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은 ‘엄마방’, ‘안방’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이며, 아예 ‘우리방’으로 불리면서 자녀와 엄마의 취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유학 현지 주택에서 ‘안방’의 호칭이 ‘부모방’으로서의 흔적을 담고 있으나 아버지의 공간, 또는 부부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학습 행위 발생장소로 본 특성

유학생 자녀의 학습 장소는 한국에서의 장소와 비교할 때, 식탁과 거실 등 공개된 장소가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자녀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위해 주부가 가사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효과적으로 어린 자녀를 지도하기 위하여 식탁이 활용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식탁과 거실테이블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발생 사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마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 이주기간이 짧고, 자녀가 어릴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학 초기에는 엄마가 자녀의 과제 수행에 깊게 관여하며, 자녀의 학습이 최대의 주요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식탁 하나 정도는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여유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탁과 거실 등 공용의 공간에서 자녀가 학습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과 영어 습득 등 분명한 동기를 갖고 유학생활을 선택한 만큼 엄마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녀의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숙지하고 있고 자녀와 많은 대화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에서 보다 뚜렷하고 장기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기방에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자립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학습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엄마가 학습을 지원할 수 없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습행위 발생 장소의 특성으로 엄마의 직접적인 학습지원군 역할은 감소하지만 감독 및 관리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엄마와 자녀의 '거리'는 더욱 밀착되고, 자녀의 생활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반면 아버지의 개입 여지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IV. 결론

본 연구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초국적 가족 형태를 선택하기 전과 후의 주생활 특성, 특히 조기 유학생 가정의 취침과 학습행위 발생장소에 한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내포되고 증착된 기러기 가족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침 행위 발생장소를 보면, 유학생 자녀의 취침은 한국에서 분리 취침하던 패턴이 변화하여, 현지에서는 엄마와 함께 자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다. 이 변화는 자녀의 연령, 성별, 주택 형식 등과 관련이 있으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엄마와 자녀의 불안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한정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매우 밀착되며, 밀착된 관계는 정신적 유대감으로 엄마와 자녀가 학습효과를 위한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밀착이 간섭으로 인식되어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영역은 대체되거나 약화된다. 그러나 현지 적응기간이 지나고 엄마는 물론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주거공간에서도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자립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 행위 발생장소를 보면, 식탁과 거실 등 개방적인 장소가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식탁과 거실 등 가족 공용의 공간에서 자녀가 학습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과 영어 습득 등 분명한 동기를 갖고 유학생활을 선택한 만큼 엄마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녀의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숙지하고 있고 자녀와 많은 대화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보다 뚜렷하고 장기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 이주기간이 짧고, 자녀가 어릴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습을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유학 초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며, 학습난이도가 높아지면 학습 장소는 자녀의 방으로 고정되는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엄마의 직접적인 학습지원군 역할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일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기러기 가족의 생활은 극히 단순화된 취침, 식사, 학습, 위생 등의 기본 행위만 유지되고, 접객 및 단란 등의 행위는 축소되고 있다. 특히 접객은 엄마 또는 자녀의 친구들로 한정되면서 대사회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빙룸과 식사실 등을 가구만 배치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와의 분리 취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침실의 일부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러기 가족은 목표 지향적이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체이며, 가족 주변의 상황과 상호조건이 유동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가족 관계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러기 가족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한정된 주생활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갈등이 부정적으로 표출될 경우, 가족 와해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분거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이 안정된 사회구조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주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안정된 주생활, 가족관계 등의 해석을 위한 기본이 되고자 하였으나, 기러기 가족의 취침 및 학습 행위로 한정하여 생활 특성을 분석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방향제시를 위해서는 생활 특성을 기본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9) 기러기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 경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05-221.
- 김선미(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 엄마’ 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71-189.
- 김양희·장은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이연숙·이현정·이지영(2005)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요소 선호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2), 120-127.
- 이영심(2008) 해외거주 한인의 주거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6(1), 47-61.
- 이지현·신경주·장상옥(2009) 한국인 거주 미국주택의 공간별 주생활행위와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119-127.
- 조혜영·이경상·최원기·Abelmann, Nancy(2005)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판]. 206 p.
-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